

'뱀부'의 공명과 신명나는 국악 하모니

한국전통문화전당 '타악공연 뱀부' 6일부터 2일간 공연 관객들에게 뱀부 소리를 잘 전달토록 악기 정확하게 배치

신명나는 국악기와 하모니를 이룬 대나무악기 '뱀부' 특유의 공명소리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울려 퍼진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동철)은 동남아시아 지역 전통으로 내려오는 대나무 악기 '뱀부'(Bambo)를 한국에서 만들어 국악기와 하모니를 이루는 공연 '타악공연 뱀부'를 오는 6일과 7일 오후 7시 30분 전당 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

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국마을문화생산자협동조합(대표 김영명)이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동남아 지역 전통 대나무악기를 분배 만든 뱀부와 국악기가 협연하는 융·복합 공연이다.

대나무 26개를 각기 다른 길이로 잘라 공연팀이 자체 제작한 '뱀부'는 지난 6월과 9월 전당 야외마당에서 진행된 '점심잠간공연'을 통해 첫 선을 보인바 있다.

자연형태를 그대로 보존해 만든 이색적인 외관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직장으로

이동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했고, 대나무의 공명을 통해 나는 특유의 소리는 지역민들의 마음에 잠깐의 힐링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점심잠간 공연'에 이어 앵콜성 실내공연으로, 야외공연 보다 뱀부 소리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악기 배치와 음향장비를 통해 그 음색이 관객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구성됐다.

공연에 연주되는 곡은 작곡가 김형태씨가 편곡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시작으로, 창작 곡 ▲류 ▲뜨롱 & spring wind ▲개는 ▲모스키토 ▲미지와의 조우 ▲HERO ▲JAM & airrang 등 총 8곡이 연주된다.

특히 7번째 곡 'HERO'는 극중 연희자가

나와 특별한 기면을 쓰고 연희를 펼쳐 관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악기 '다르부카', '산부르', '뽕고', '카혼'도 협연에 나서는 등 풍성한 음의 향연이 마련돼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동철 원장은 "국악기의 개성있는 소리와 뱀부의 공명소리가 어떤 화음을 이룰지 직접 귀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며 "풍성한 음의 향연을 통해 모처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악공연 뱀부'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063-236-1577(한국마을)로 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 무형문화재 기념물 지정

임실 덕치면 김일수씨 '지장' 보유

(무형문화재)

상가 윗관형 암각화 유적 기념물로

(기념물)

임실군은 덕치면 김일수(88)씨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5호 지장(紙匠) 보유자로 인정을 예고하고, 임실 상가 윗관형 암각화 유적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0월 28일과 11월 11일 각각 도보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로써 군은 201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기능보유자 홍순수씨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35호 지장(紙匠) 보유자를 모두 보유하게 되면서, 명실공히 전통한지의 맥을 잇고 있다.

3대째 한지를 뜨고 있는 김일수씨는 한지제조업의 외길을 고집해 온 자로서, 8세부터 아버지를 도와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하여 6천만인 14세 무렵 처음 한지를 떠낸 이래 지금까지 58년간 한지를 뜨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임실 상가 윗관형 암각화 유적은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의 가덕재 옆에 위치한 것으로 일명 내뽕바위, 윗관바위 등으로 불리며 2002년에 최초 발견되었고, 2014년에 임실문화원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10여개의 바위로 구성된 윗관형 암각화 유적은 윗관형 암각화 23점, 윗관형 패턴 16점, 고누판 1점, 선각 표현 2점, 바위구멍 90여 개 등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 최대의 윗관형 암각화로 알려져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이상훈 작가(오른쪽)와 동국사 거리 여인숙.



고보연 작가(오른쪽)와 그의 작품 '매일 머무름'.



제3회 군산미술상

이상훈 · 고보연 작가 공동수상

제3회 군산미술상 수상자로 이상훈·고보연 작가가 선정됐다.

지난 2일 군산미술상위원회(위원장 이승우)는 이들 수상자들이 군산 미술발전은 물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활동함에 있어 그 공이 탁월하여 공동수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훈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10년 전 군산에는 전문적으로 문화예술기획을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대안 공간조차도 없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군산 원도산에 전문 갤러리가 4개나 생겨 다양한 문화전시와 공연들이 진행되며, 문화향유의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기획자들이 자유롭게 때론 진지하게 문화의 씨앗을 심고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군산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전공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공간 문화대상 최우수상(국무총리상)과 2014년 대한민국 지역특성화 사업 최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이상훈 여인숙

이상훈 작가
"주변에 많은 문화예술인들 함께 자유롭게 문화의 씨앗 심고 노력할 수 있기를"

고보연 작가
"지역 미술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정진할 것"

문화공간 대표를 맡고 있다.

고보연 작가는 "군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에 군산미술상은 매우 뜻 깊습니다. 군산의 미술발전에 이바지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산미술상을 운영해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고 작가는 전북대 미술학과 서양화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독일 드레스덴 미술대학에서 조각 설치를 전공했다.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군산, 2003 전북 청년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이번 미술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군산미술 발전에 공헌한 원로작가에 수상하는 은파상을 제정, 서양화가 김영성 선생님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군산미술상은 미술인들에게 군산 미술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개인전과 창작지원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2017년 1월 13일 군산 근대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김상휘 한예총 대외협력위원장 한예총문예대상 국회의장상 수상

김상휘 한국예총대외협력위원장이 한국예총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30회 한국예총문화예술대상에서 국회의장(정세균)상을 수상했다.

지난 2일 한국예총문화단체총연합회(하철경)에 따르면 김 소설가는 2016년 한 해 동안 개인 창작활동과 한국예총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한국예총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소설가는 수상소감에서 "대한민국 3부요인상중 하나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고, 앞으로 대한민국 예술인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 달라는 의미 같다"고 말했다.

1985년 전북대학교학술문화상 출신으로 데뷔한 김 소설가는 전주예술상, 전북문학상, 한국농어촌문학상, 한국예총문화예술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소설집으로는 국풍 김정호, 전설의 타짜 엄도치, 서울의 달, 서울부엉이, 병사의 일기, 경력사원 모집, 인천 강 모래톱 사람들 등이 있다. 현재는 풍수소설 왕의 자리를 집필 중에 있다. /정해은 기자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학술심포지엄 열려

전북도와 장수군이 주최하는 장수가야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가 지난 2일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펼쳐졌다.

이 학술심포지엄은 호남고고학회와 재단법인 전주문화유산원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고, 군산대학교 박물관, 전북사학회, 후백제연구회 등의 후원으로 장수가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학술심포지엄은 문화재청 세계유산위원회 전문위원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장수군 제철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장현근교수의 "장수군 제철유적의 지질학적 특징", 한수영호남문화연구원실장의 "장수군 철기문화의 전파와 전개과정" 객장근교수의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등의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또, 학술심포지엄은 철의왕국 가야의 철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철 생산시설이 장수지역에서 60여개소가 확인된 바, 이를 바탕으로 가야문화의 당위성을 밝히는 자리로 관련전문가들의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학술심포지엄을 주최하는 군관계자는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에서의 제철유적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심도 있는 연구발표들을 통해 장수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큰 기틀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며 "장수군의 진정한 문화가치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5일>

▷쥐띠
48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을 조심하라.
6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투자는 삼가라.
72년생: 문서운이 들어오니 계약, 서류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84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소띠
49년생: 인덕이 따르니 일이 잘 성사될 것이다.
61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73년생: 혼자서 해내야 하는 운이니 타인의 덕을 바라지 마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매사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택으로 향하니 집안에 화기가 돌면서 경사가 따르는 운이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말 많은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인해 해결된다.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다.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이 심책이다.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니 운이니 주의하라.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기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뒷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는 운이나 뒷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65년생: 소외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울 듯.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비우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겸손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도 좋은 운.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 있으니 조심하라.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니 금전운은 불리하다.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원숭이띠
56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8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큰일은 불가하다.
80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2년생: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니 운이다.
93년생: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개띠
46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70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이니 주의하라.
82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소울했던 사람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면 좋은 운이다. 오해가 풀릴 수 있으니 먼저 부드럽게 다가가라.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져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얌전한 실태라가 풀리는 운이다.